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인학습자 지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은임, 송선희*
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Influence of Core Competencies of Lifelong Educators on the Lifetime Ability of Adult Learne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Adult Learners' Wisdom

Eun-Im Kim, Sun-Hee Song*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지혜를 매개효과로 하여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총 520부가 분석에 사용 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및 성인학습자 지혜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모든 변인 간 상관계수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지혜가 성인학습자의 생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66.8%의 영향력이 있었고,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가장 많이 미치는 변인은 성인학습자 지혜의 창의적 문제해결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배려, 변화수용,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생 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학습자 지혜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인학습자 지혜를 통해서도 영향력이 검증되어 지혜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지혜가 중요한 변인임이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지혜는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생애능력의 향상을 위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act of lifelong educators ' core competencies as a mediating effect on adult learners ' ability to func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imed at adult learners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was finally used for a total of 520 additional analys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re competence of lifelong educators and the life ability of adult learners, core competence has a static association with wisdom. In addition, wisdom has a high static association with life expectancy. Second, the core competence and wisdom of lifelong educato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static impact on adult learners ' life abilities, accounting for 66.8%. Specifically,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s ability were creative problem solving,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acceptance of change, which were lower factors of wisdom. Third, the impact of a lifetime educator's core competence on adult learners is not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core competence has an indirect influence on life capacit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wisdom, and that wisdom has directly interfac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e and life ability.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proved that the core competence and wisdom of a lifelong educator are important variables for adult learner's life abilities. Based on this, the core competence of lifelong educators being taught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enhanced, and the ability of adult learners to utilize the wisdom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experiences of adult learners, to improve their life skills.

Keywords : Lifelong Educator, Core Competence, Adult Learner, Life Ability, Wisdom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Song(Hoseo Univ.)

Tel: +82-10-3747-8959 email: shsong@hoseo.edu

Received August 31, 2018

Revised (1st September 27, 2018, 2nd October 4, 2018, 3rd October 11,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1.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평생교육은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은 여러 주체들 즉 교육자와 학습자, 그리고 정책 및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노력에 의해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먼저 평생교육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성인학습자와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 향상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자의 연구는 주로 직무와 관련된 연구[1-3]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에 주목한 연구로서는 박명신(2015)의 연구에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관해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평생교육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자의 교수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

다음으로 평생교육의 또 다른 주체는 성인학습자이다.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인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학습자의 생애능력은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창출해낼 줄 알고 한 사람의 고유한 능력과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총체적 능력을 말하며, 개인의 삶에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야 할 핵심 능력이다. 그동안 평생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대한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셀프리더십 수준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창의성, 자기결정성과 같은 요인들이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에 미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5].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인지적 학습역량 및 생애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인지적 학습역량 및 생애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6]. 그 중에서도 인지적 학습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혜는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경험적 요소와 평생교육자의 학습역량에 의해 더 높게 발현될 수 있다. 즉, 지혜는 개인

의 생애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지혜를 높이기 위한 외부조건인 경험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자의 역량적인 부분이 중요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혜는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나, 어떤 이상을 좇아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이 불확실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개 이상의 보완적인 또는 대립적인 관점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삶의 요소가 바로 지혜이다[7-8]. 이러한 지혜는 성인학습자가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획득된 역량의 요소들과 자신의 경험적 가치관을 토대로 복잡한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된다[9].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향상을 위해 지혜는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교육자의 역량에 의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습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혜와 관련된 연구결과 중에는, 지혜는 오늘날 사회 구성원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하나로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실용적인 결정을 수반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발휘된다고 보았다[9-10].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및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인 지혜가 학습상황에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자와 성인학습자 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대해 교육자가 인식하는 정도와 생애능력의 수준과 성취도에 대한 관계성 연구[11], 교사의 전문적 생애능력 개발을 위한 삶의 관한 연구[12] 등 주로 생애능력을 청소년이나 일부 전문직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매개효과로서의 성인학습자의 지혜와 연관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의 관계성을 확인해 보고,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의 관계에서 성인학습자의 지혜가 매개효과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기관의 다양성과 교수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자에 맞는 명칭들이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권두승(2006)은 평생교육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3].

Darkenwald와 Merriam(1982)은 평생교육자의 역할을 교수자와 상담자, 행정가,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분하였고[14], Kowalski(1988)는 프로그램기획자로서의 역할, 상담 및 자문가로서의 역할, 요구분석가로서의 역할, 교육과정개발자로서의 역할, 프로그램평가자로서의 역할, 교수학습전개자로서의 역할,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15].

국내에서 이해주, 최운실과 권두승(2002)은 멘토, 프로그램 개발자, 교육자로 구분하였고[16], 권두승(2006)은 평생교육담당자의 효능감 차원에서 보았을 때, 교수자, 프로그램개발자, 관리자, 변화 촉진자, 협력자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13]. 이외에도 김진화 외(2008)는 평생교육자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준이나 스타일에 따라 교수활동·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생교육자를 평생교육현장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활동을 기획(교수학습 설계 내용을 학습목적, 목표, 대상, 활동 및 방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능력)하고 실행(학습내용의 효과적, 효율적 전달과 운영을 위해 적합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하며, 학습관리(학습자의 학습성과 및 장애 등을 진단하고 분석해 주는 능력)와 지원의 역량(학습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변화를 유도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역량)을 포함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곧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을 도출하는데 용이하며,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 요인들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2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는 핵심역량과 유사한 관점으로 직업능력을 논의하거나 발전된 문해력의 개념을 받아들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고, 최근 들어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필요한 기초능력으로서의 생애능력 또는 생애기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개발 되어야하는

역량으로 학교뿐 아니라, 평생교육에도 반영 되어야 하는 개념이다[18].

학습자의 생애능력은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요건이며 평생학습 추구에 필요한 핵심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9].

또한 생애능력은 전 생애에 걸친 능력을 의미하며 그 개념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생활과 작업세계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요건으로서 평생학습을 추구하는데 있어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능력이다[20]. 그리고 생애능력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능력이다. 개인이 일생동안 살면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많은 학자들은 생애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21].

2.3 지혜

지혜(wisdom)는 지식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원전 3000년의 그리스에서 시작된 서구에서의 전통적인 지혜는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기술을 강조한 반면,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은 명료한 사고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 가치를 절하하였으며, 지혜를 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기술 등을 의미하였다[22]. 또한 1980년대에 이르러 지혜에 대한 개념이 인간 감정 중 하나로 조망되며 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지혜에 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혜가 매우 광범위한 구성 개념이며 각 문화의 영향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이다[23].

지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연구자들은 지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또는 지혜의 차원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Clayton과 Birren(1980)은 지혜를 인지적, 감정적, 반성적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선악을 분별하는 정신의 작용이며, 자아통합과 성숙, 판단과 대인관계 기술, 인생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같은 긍정적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발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24]. 또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속성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속성 혹은 창의성이나 지능의 속성에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평정하도록 한 연구들에서도 지혜와 지능, 창의성은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25].

2.4 선행연구

지금까지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지연(2013)은 핵심역량이 생애능력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26]. 이에 대한 학습자의 생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 성장하는 세대들을 위한 창의성과 소통 및 동반성장, 그리고 체험과 열정과 같은 해결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박명신과 임선희(2014)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들 중 평생교육자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유형, 리더십이 성인학습자들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27]. 핵심역량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28-29]. 또한 역량 진단을 통하여 역량 수준을 분석하여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30-31].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높아진다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교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자들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간의 관계와 영향력 분석이 필요하다. 이혜심(2005)은 학생들의 생애능력 즉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따른 차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생애능력 수준에서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문제해결능력 수준은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준은 보통의 평가를 보였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은 평가를 보인다고 하였다[32]. 한주리 외(2008)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학습자의 생애능력 중 일부분인 의사소통의 질과 양에 따라,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의 차이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의사소통의 양이 많을수록 질이 높다고 생각할 때, 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33]. 송윤숙 외(2012)의 생애능력 연구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핵심역량을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규정하였다[34].

지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혜와 관련된 보편적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35-36], 요소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25], 지혜를 지능이나 창의성과 비교하는 연구[3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혜는 단일 차

원의 구성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라는 것, 다양한 집단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정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혜의 매개효과 연구는 상담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상담 및 심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인지적 지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가 되었으며, 오효정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지혜가 상담자의 경험적 바탕을 근거로 치료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38]. 또한 개인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지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보연(2017)의 연구에서는 지혜가 실질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심리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대상자들에게 대해 개인의 의미발견을 높이고 삶의 영위를 도울 수 있는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39].

Hartman(2001)은 지혜가 인생의 전반적 시기 중 특히 20대의 경험을 토대로 40대 이후에 내외적 경험에 의해 촉진된다고 밝히고 있다[40]. 자신의 힘들었던 인생의 사건이나 삶의 전환사건이 지혜를 촉진시켜주는 주요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은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게 하고, 경험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서 지혜가 발달한다는 것이다[41]. 즉, 지혜는 개인의 자각적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삶의 경험적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나이는 성인들이 젊은 성인들 보다 지혜와 관련해 지식적 수행에서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지혜의 발달이 인생의 연대기적 연령 그 자체보다는 인생의 경험적 부분과 사회적 변화에 의해 더 영향을 받지만, 연령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리적 성숙을 이룰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 노년기 성인의 지혜가 높다는 것은 많은 인생적 경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과 성숙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해결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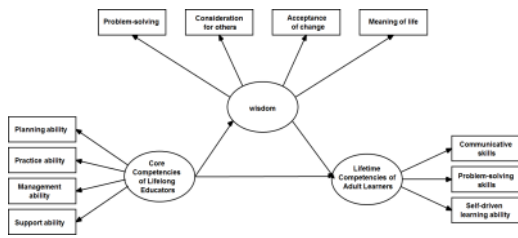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지혜 및 성인학습자 생애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 H2.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지혜가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 H3. 평생교육자의 지혜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박명신(2015)의 연구[4]를 근거로 하여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학습자의 지혜에 대한 매개효과와 영향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총 550명에게 방문 조사와 우편 배부를 병행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520부로 전체 설문지의 94.5%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로는 수원시 25.0%(130명), 성남시 25.4%(132명), 화성시 11.3%(59명), 의정부시 12.5%(65명), 포천시 13.3%(69명), 김포시 12.5%(65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 31.7%(165명), 여성 68.3%(355명)으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는 20세-29세 9.2%(48명), 30세-39세 14.2%(74명), 40세-49세 28.8%(150명), 50세-59세 34.8%(181명), 60세 이상 12.9%(67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기관 유형은 평생학습관이 7.7%(40명), 평생교육시설 74.8%(389명), 지역주민센터 6.9%(36명), 기타 10.6%(55명)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

으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3.3 측정도구

1) 평생교육자 핵심역량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정주영(2012)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15].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기획역량 10문항, 실행역량 10문항, 관리역량 10문항, 지원역량 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핵심역량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자 핵심역량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1995.166(df=542, p=.000)$, TLI=.895, CFI=.904, RMSEA=.072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자 핵심역량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는 기획역량 .927, 실행역량 .934, 관리역량 .931, 지원역량 .915이었다.

2)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이석재 외(2003)가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42].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관한 질문은 138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소통 48문항, 문제해결 45문항, 자기주도적 학습 4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학습자 생애능력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번의 분석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16개 문항, 문제해결능력 32개 문항, 자기주도학습능력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검토를 통해 선정된 문항으로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4096.408(df=1920, p=.000)$,

TLI=.857, CFI=.864, RMSEA=.047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새롭게 선정된 64문항을 사용하여 생애능력을 구성하였다. 생애능력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의사소통능력 .910, 문제해결능력 .944, 자기주도 학습능력 .898과 같이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3) 지혜

지혜에 대한 측정도구는 조서목(2014)이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9]. 지혜에 관한 질문은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14문항, 타인배려 10문항, 변화수용 7문항, 삶의 의미 4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지혜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지혜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1267.605$ ($df=535, p=.000$), TLI=.904, CFI=.914, RMSEA=.051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창의적 문제해결 .917, 타인배려 .857, 변화수용 .811, 삶의 의미 .806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핵심역량의 기획, 실행, 관리, 지원 지혜의 문제해결, 타인배려, 변화수용, 삶의 의미, 생애능력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학습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 RMR, GFI, AGFI, IFI, C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고<Table 1> 모든 관측변수에 대한 표준화 요인부하량(λ)은 0.611에서 0.926으로 나타나 잠재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 또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도 각각 0.7과 0.5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RMR	GFI	AGFI	IFI	CFI	RMSEA
742.113 ($p=0.000$)	369	.916	.894	.951	.908	.952	.942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ore competen c-ies	→ Planning	0.857	FIX	-	0.970	0.889
	→ Practice	0.917	0.038	29.310***		
	→ Management	0.926	0.036	29.833***		
	→ Support	0.872	0.042	26.605***		
Lifetime competen c-ies	→ Communicative skills	0.817	FIX	-	0.969	0.913
	→ Problem-solving skills	0.898	0.038	24.273***		
	→ Self-driven learning ability	0.833	0.043	21.958***		
Wisdom	→ Problem solving	0.839	FIX	-	0.948	0.821
	→ Consideration	0.754	0.042	19.193***		
	→ Acceptance of change	0.744	0.044	18.852***		
	→ Meaning of life	0.611	0.053	14.622***		

*** $p<.001$

4.2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생교육자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기획역량, 실행역량, 관리역량, 지원역량, 생애능력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학습, 지혜의 하위요인인 창의적 문제해결, 타인배려, 변화수용, 삶의 의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자 핵심역량은 지혜와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489, 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기획역량 .452, 실행역량 .437, 관리역량 .462, 지원역량 .450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001$). 또한 성인학습자 생애능력과의 유의한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r=.494, p<.001$).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는 기획역량 .458, 실행역량 .427, 관리역량 .476, 지원역량 .457로 나타났다($p<.001$). 지혜도 성인학습자 생애능력과의 .759로 높은 정적 관련성을 가졌다($p<.001$).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는 창의적 문제해결 .761, 타인배려 .655, 변화수용 .616, 삶의 의미 .457로 나타났다($p<.001$).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측정도구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지혜와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위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Table 3>은 $\chi^2=157.628(p=.000, df=41)$, RMR=.010, GFI=0.949, AGFI=0.917, IFI=0.973, CFI=0.973, RMSEA=0.074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기준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4>, 핵심역량은 성인 학습자 지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43, p<.01$), 생애능력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7, p<.05$). 또한 성인 학습자 지혜도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77, p<.01$).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은 성인 학습자의 지혜에 대한 분산을 39.5% 설명하였으며, 생애능력의 분산은 8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earch Model fit

$\chi^2(p)$	df	RMR	GFI	AGFI	IFI	CFI	RMSEA
157.628 (p=0.000)	41	.010	.949	.917	.973	.973	.074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SMC
Core Competencies	→ Wisdom	.543	.035	11.597***	.395
Core Competencies	→ Lifetime competencies	.167	.028	1.851*	.840
Wisdom	→ Lifetime competencies	.877	.052	16.595***	

*** $p<.001$, ** $p<.01$, * $p<.05$

다음의 <Table 5>는 평생교육자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생애능력 간의 관계에서 지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평생교육자 핵심역량이 지혜가 매개하여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477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이러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또한 평생교육자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069, p>.05$)가 유의하지 않았다. 지혜는 평생교육자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생애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wisdom

Hypothesis		Direct	Indirect	Total
Core Competencies	→ Wisdom	.543**	-	.543**
Core Competencies	→ Lifetime competencies	.069	.477**	.546**
Wisdom	→ Lifetime competencies	.877**	-	.877**

** $p<.01$

5. 결론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학습자의 지혜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및 성인학습자의 지혜 간의 관계에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인 기획역량, 실행역량, 관리역량, 지원역량은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 학습과 성인학습자 지혜인 문제해결, 타인배려, 변화수용, 삶의 의미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학습자의 지혜인 창의적 문제해결, 타인배려, 변화수용, 삶의 의미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생애능력 및 지혜는 모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지혜가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혜의 하위요인 창의적 문제해결, 타인배려, 변화수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경(2005)과 한주리 외(2008)의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에 따라서 성인 학습자의 생애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43,33]. 이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역량과 생애능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성인학습자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과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의 관계에서 성인학습자의 지혜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은 성인학습자의 지혜에, 성인학습자의 지혜는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호정 외(2012)의 연구와 김보연(2017)이 지혜에 대한 매개효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41-42]. 이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지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생애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은 성인학습자의 지혜가 이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학습자의 지혜가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이므로 성인학습자의 지혜와 관련한 교육적 환경이나 교육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인학습자의 지혜의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자가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적극적인 촉진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한계점과 표집방식의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평생교육자의 생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References

- [1] J. W. Kim, "Inquiry on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of lifelong educator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9, No.2, pp.219-247, 2003.
- [2] B. C. Ya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qualifications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teachers for lifelong education revitalization*.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2005.
-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Competence, learning and work in Korea: PIAAC repor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
- [4] M. S. Park,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lifelong learning educators' core competency, adult learner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and life competencies*. Doctoral Thesis, Chungnam University of Korea, 2015.
- [5] H. B. Bang, E. S. Lee, H. J. Park, "The Effects on Learning Outcomes by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27, No.6, pp.317-336, 2017.
DOI: <https://dx.doi.org/10.14257/ajmahs.2017.06.83>
- [6] M. S. Park, "The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lifelong learning educators' adult learners recognized core competency, adult learner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and life competenci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1, No.1, pp.27-52, 2015.
- [7] J. Kekes, "Wis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20, No.3, pp.277-286, 1983.
- [8] R. Y. Choi, *A study of wise-aging for some scholars in their life history*. Doctoral Thesis, Ajou University of Korea, 2012.
- [9] S. M. Ch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wisdom scale for Korean senior citizens*. Doctoral Thesis, Kungsung University of Korea, 2014.
- [10] R. A. Dixon, P. B. Baltes, *10 Toward life-span research on the functions and pragmatics of intelligence*. Practical intelligence: Nature and origins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 203-235, 2014.
- [11] J. S. Han, *A study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life competencies and teachers' perception*. Doctoral Thesis, Kangwon University of Korea, 2009.
- [12] J. H. Kim, "A study on teacher's adult learning life for life skill development",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7, No.1, pp.35-53, 2004.
- [13] D. S. Kwon, *Introduction to adult education*. Seoul: Education Science History.
- [14] G. S. Park, J. H. Kim, "Analysis on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Reinforcement of Lifelong Educator's Rol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8, No.3, pp.35-57, 2012.
DOI: <https://dx.doi.org/10.26857/jlls.2012.12.8.3.35>
- [15] J. Y. J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to Reinforce the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Instructive Competenc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4, No.2, pp.210-223, 2012.

- DOI: <https://dx.doi.org/10.13000/jfmse.2012.24.2.210>
- [16] H. J. Lee, U. S. Choi, D. S. Kwon, *Program development for lifelong education*. Publishing of 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University.
- [17] J. H. Kim, H. Kim, Y. H. Ko, S. H. Kim, S. H. Sungm, S. B. Park, "A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ifelong educator's job mode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4, pp.1-31, 2008.
- [18] C. Sleezer, "Life skil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Global implication for adult educator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workplace",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6, No.4, pp.103-125, 2003.
- [19] H. S. Ryu, T. J. Kim, S. J. Lee, S. Y. Song, *Establishment of life-cycle standards at national level and study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earning system(I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4.
- [20] S. G. Lee,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life-competence tanks to the learning attitudes on the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2, No.4, pp.5-31, 2008.
DOI: <https://dx.doi.org/10.4275/kslis.2008.42.4.005>
- [22] C. D. Chung, K. H. Kang, "Analysis on core abiliti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ientific gifted students' life skills: In focus of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33, No.2, pp.290-303, 2009.
DOI: <https://dx.doi.org/10.21796/jse.2009.33.2.290>
- [23] K. W. Sung, S. Y. Lee, J. H. Park, "Scale development of wisdom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0, No.1, pp.65-80, 2010.
- [24] M. H. Kim, *Exploring the concept of wisdom and its role on the life among middle-aged and elder adults in Korea*.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8.
- [25] V. P. Clayton, J. E. Birren,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 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103-135, 1980.
- [26] J. Y. Lee, "Research trends of Korean adult education: Focusing on 'andragogy today' and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6, No.3, pp.185-209, 2013.
- [27] M. S. Park, S. H. Lim, "The effects of the lifelong educators' communication type, competence, and leadership on the adult learners' educational satisfaction degree",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5, No.1, pp.31-54, 2014.
DOI: <https://dx.doi.org/10.18612/cnujes.2014.35.1.31>
- [28] J. I. Lee,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1, No.2, pp.227-246, 2012.
- [29] C. W. Nam, Y. H. Park, J. H. Song,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by their majors and grades: Focusing on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12, No.3, pp.91-118, 2016.
- [30] H. S. Lee, Y. W. Lee, "Competency based curriculu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implications",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34, pp.17-35, 2011.
- [31] H. Y. Kim, S. J. Lee, "Application plans of competence assessment: Focusing on th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an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7, No.4, pp.139-172, 2013.
- [32] H. S. Lee, *The Level of life competencies of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Kyungnam University of Korea, 2005.
- [33] J. L. Han, E. J. Namgung, "The difference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amount and dep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1, pp.325-337, 2008.
- [34] Y. S. Song, K. W. Lee, "Effects of creativity instruction on creativity and cognitive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Vol.2, No.2, pp.73-88, 2012.
- [35] M. Takayama, *The concept of wisdom and wise people in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okyo university, Japan, 2002.
- [36] S. Y. Yang, "Conceptions of wisdom among Taiwanese Chine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2, No.6, pp.662-680, 2001.
DOI: <https://dx.doi.org/10.1177/0022022101032006002>
- [37] R. J. Sternberg, "The theory of successful intellig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3, No.4, pp.292-316, 1999.
DOI: <https://dx.doi.org/10.1017/cbo9780511509612.003>
- [38] H. J. Oh, E. K. Oh, B. W. Kim, "The 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 of counselors and Level of case conceptualiz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wisdo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4, No.2, pp.255-271, 2012.
- [39] B. Y. Kim, *The mediating effect of wisdo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and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17.
- [40] P. S. Hartman, *Women developing wisdom: Antecedents and correlates in a longitudinal samp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01.
- [41] Y. R. Yoon, I. S.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wisdo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3, pp.1739-1754, 2013.
DOI: <https://dx.doi.org/10.15703/kjc.14.3.201306.1739>
- [42] S. J. Lee, Y. K. J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2003.
- [43] E. K. Kim,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Student Outcomes and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9, No.4, pp.877-895, 2005.

김 은 임(Eun-Im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7년 9월 : 호서대학교 교육학 전공 (철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복지, 평생교육, 교육학, 학습컨설팅

송 선 희(Sun-Hee Song)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 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육심리, 학습컨설팅